청산도 구들장논의 분포와 물리적 구조에 관한 연구

조영재 • 유학열* • 윤원근** • 최식인** • 이영옥*

충남발전연구원 농촌 • 농업연구부 •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 **협성대학교 지역개발학과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Physical Structure of Gudle-jang Paddy-field¹⁾ in Cheongsando

Cho, Young Jae • You, Hag Yeol* • Yoon, Won Keun** • Choi, Sik In** • Lee, Young Ok*

Dept. of Rural & Agricultural Research,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Chungnam Agricultural Business Diversification & Integration Center*

***Dept. of Regional Development, Hyupsung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the physic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Gudle-jang Paddy-field in Cheongsando. On the basis of this study, the potential value and the assignment for the preservation of Gudle-jang Paddy-field were suggested. Gudle-jang Paddy-field is centrally distributed to Cheongsando and has various features as follows. First, it has the Ondol structure which is used Gudle-jang. Second, it has an irrigation canal which has functions of the tank and the prevention of cold-weather damage as well as the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 The values of Gudle-jang Paddy-field are as follows; 1) It is the peculiar and inherent agricultural structure which is only found in Cheongsando. 2) It is the structure that the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and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technique of traditional method are applied. 3) It has the worths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4) It is the important resource creating superb rural landscape of the region. In spite of these values of Gudle-jang Paddy-field, there were little efforts to preserve it. From now on, it is needed to form of sympathy about the value of Gudle-jang Paddy-field and to make efforts for preservation of it. Also th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strategy should be provided to preserve and manage Gudle-jang Paddy-field.

Key words : Gudle-jang Paddy-field, Cheongsando,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1. 서 론

오늘날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 기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여가시간의 증대, 여가행태의 변화 등에 의해 농촌생활체험, 농사체험, 농촌경관감상을 목적으로 농촌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지역 지자체에서는 농업·농촌에 잠재된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농촌문화 및 전통, 농촌경관 등 다양한 자원이 우리의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그 관심의 정도가 낮은 것 가운데 하나가 산록이나 산간에 자리 잡은 ‘다랑이논²⁾’이다. 최근 들어 다랑이논이 분포하는 마을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다랑이논이 가지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외형적으로 다랑이논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내부구조가 일반적인 다랑이논과 전혀 다른 ‘구들장논’이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에 분포되어 있음이 알려지면서 몇몇 전문가와 관련기관으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들장논은 산비탈이나 구릉에 마치 구들장을 놓듯 돌을 쌓아 먼저 바닥을 만든 뒤, 그 위에다 다시 흙을 부어 다져서 논을 일군 것으로, 옛날 척박하고 비탈진

Corresponding author : Yoon, Won Keun

Tel : 031-299-0827

E-mail : younwk@uhs.ac.kr

땅을 개척하여 기름진 땅으로 가꾼 옛 선조의 슬기와 개척 정신이 배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농업토목기술의 산물이며, 옛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우수한 한국농업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이학수, 2009).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산도 구들장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아직까지 매우 미미하여 제대로 된 논고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대상에서 방치되어 온 청산도 구들장논을 대상으로 분포 실태와 함께 물리적 구조 및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들장논의 잠재된 가치와 보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구들장논의 기초적 정보를 습득하고,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양지리, 상서리, 부흥리 일원을 중심으로 1차 조사(2010년 5월 29일 ~ 30일)에서는 구들장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중 양지리를 대상으로 2·3차 조사(2010년 9월 2일 ~ 3일, 12월 10일)에서는 구들장논의 물리적 구조 및 특징 등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만으로 알 수 없는 정보는 마을주민, 청산도 문화해설사, 슬로시티 청산도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통해 획득하였다.

II. 청산도 구들장논의 개념과 분포

1. 구들장논의 개념

구들장이란 방고래⁴⁾ 위에 깔아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로 주로 우리나라의 전통 온돌시스템에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구들장으로 주로 운모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백운모를 사용하였는데 백운모가 열 보존 시간이 길고, 절연체였기 때문이다. 구들장에 쓰이는 다른 암석들에도 주로 운모라는 광물이 대부분 함유되어 있다. 온돌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옥 난방 방법이며, 방구들이라고도 한다. 한옥의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고, 아궁이에서 생성된 열기를 머금은 뜨거운 연기가 방바닥에 깔린 구들장 밑을 지나면서 난방이 되고 그 연기는 구들장 끝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의 난방법이다.

구들장논에 대해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지만, 구들장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들장을 사용하여 온돌구조 형태로 축조된 논”이라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들장논이 일반 다랑이논⁵⁾과 비교하였을 때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다랑이논

Table 1 일반 다랑이논과 구들장논의 비교

구 분	일반 다랑이논	구들장논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 일원 - 경남 산청군, 함양군 일원 - 남해 해안 일부지역 - 기타 산간내륙 일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도 - 타 지역에서의 분포여부는 알려진바 없음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산악지역이나 경사지 등의 한계지역에서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다랑이논과 동일
외형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식 논의 형태 - 지표 용·배수로 구조 - 기초부분이 흙+돌로 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식 논의 형태 - 통수로 존재 - 기초부분이 주로 돌(구들장)로 축조
내부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흙을 많이 사용 - 지하에 특별한 구조물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구들장을 사용 - 돌기둥 및 온돌(구들)구조
사례	<p><함양군 마천면(지리산) 일원></p>	<p><청산도 상서리 일원></p>

은 주로 지리산 일원이나 경남 산청군, 함양군 일원, 남해 해안 일부지역, 기타 산간내륙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구들장논은 현재 청산도 일부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고, 타 지역에서의 분포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둘째, 일반 다랑이논은 주로 산악지역이나 경사지 등의 한계지역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분포하는 위치 측면에서는 구들장논도 동일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외형적 형태에 있어서 일반 다랑이논은 계단식논의 형태로 지표면에 용·배수구가 흐르고 기초부분이 흙과 돌을 섞어서 축조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 구들장논은 계단식논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나, 지표 용·배수로 대신 통수로가 존재하고 기초부분이 주로 돌(구들장)을 사용하여 축조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 일반 다랑이논의 내부구조는 주로 흙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구들장논은 흙보다는 주로 돌(구들장)을 많이 사용하였고, 특히 돌기둥과 구들장으로 이루어진 온돌(구들)의 형태를 갖고 있다. 정리하면, 일반 다랑이논과 구들장논은 계단식논의 공통적인 형태를 보이지만, 논을 만들 때 구들장의 사용여부, 그리고 통수로의 유·무에 따라 그 특성이 구분될 수 있다. 즉, 계단식논의 형태에 논 의 구조재료로서 구들장이 많이 사용되었고, 용·배수 역할의 통수로가 존재한다면 구들장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Figure 1 구들장논의 구조.

2. 청산도 구들장논의 분포와 입지적 특성

청산도는 전남 완도군에 속하며, 완도항에서 남쪽으로 19.2km 떨어진 다도해 최남단 해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총 41.8km²(5개 유인도 포함)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산도에는 23개의 행정리와 13개의 법정리가 있으며 2010년 12월 현재 1,369세대 인구 2,620명이 거주하고 있다. 청산도 내 13개 법정리 가운데 구들장논이 분포되

어 있는 곳은 현재까지 상서리, 부흥리, 양지리 3개 마을⁶⁾로 알려져 있다. 상서리, 부흥리, 양지리마을의 경우에도 논 전체가 구들장논이라 볼 수는 없으며 일부의 논이 구들장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들장논의 분포를 살펴보면 양지리 총 33필지, 23,781m², 부흥리 총 48필지, 34,142m², 상서리 총 11필지, 7,145m²로 추정된다.

Figure 2 청산도 구들장논의 분포.

청산도 논은 대체적으로 평지 보다는 산록과 산간(중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구들장논이 분포하는 상서리, 양지리, 부흥리도 중산간지역에 위치하여 주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와 용출수가 많은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구들장논에서 300~500m 떨어진 산에 구들장 형태의 넓고 얇은 돌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나 논 흙으로 쓸 수 있는 진흙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마을 주변에서 구들장 형태의 돌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돌(자갈)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형적·토질적 조건들이 모두 구들장논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역으로 말하면 논농사를 짓기에 열악한 청산도의 자연조건을 극복한 산물이 곧 구들장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청산도에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시기 및 인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의 약 5배(13,000여명)나 많은 인구가 거주한 적이 있다고 한다. 지금의 논 면적이 당시와 변함없다고 가정하면 쌀이 매우 부족했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조건이 불리한 한계지역에까지 구들장논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양지리에 거주하는 주민⁷⁾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 식민지시대 쌀의 공출(供出)이 많아 식량난이 심각해져 마을주민들은 자급을 위해 조건이 매우 불리한 곳까지 논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1945

Table 2 청산도 구들장논의 현황

마을명	양지리	부흥리	상서리
필지 (면적)	33필지 (23,781m ²)	48필지 (34,142m ²)	11필지 (7,145m ²)
토지 이용	논 20필지(60.6%) 밭 13필지(39.4%)	논 46필지(97.9%) 밭 1필지(2.1%)	논 11필지(100%)
분포도

* 숫자는 논밭의 지번을 의미

년경까지 구들장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다고 한다.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청산도의 농경지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Table 3).

Table 3 청산도와 전국의 토지이용현황 (2010년)

구 분	농경지 (전+답)	임야	기타
청산도	14.1%	71.4%	14.5%
전 국	19.9%	64.7%	15.4%

자료 : 통계청, 지목별 국토이용현황, 2011

III. 청산도 구들장논의 물리적 구조와 특징

1. 조사대상지 선정 및 개요

청산도에서 현재까지 구들장논이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진 지역은 양지리, 상서리, 부흥리 일원이며, 이들 지역 중에서 물리적 구조와 특징을 위한 조사 대상지역으로 양지리를 선정하였다. 양지리를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첫째, 구들장논의 특징 중의 하나인 통수로가 대체로 양호하게 보전되어 있다는 점, 둘째, 구들장논을 만드는 과정을 목격할 적이 있고 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주민이 있다는 점, 셋째, 증언을 뒷받침 해주는 구들장 형태의 돌이 양지리 마을 주변에

현재도 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양지리는 청산도 중앙에 위치한 마을이며, 옥녀봉 기슭해 자리잡은 전형적인 산간마을이다. 청산도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라하여 1789년 강진현에 속할 당시 「호구총수」에 의한 마을 이름은 양지리로 기록되었으며 1876년에는 양중리로 이후 1896년 2월3일 완도군 창설시 현재의 양지리로 명명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0년경부터 1960년대까지는 마을의 가구수는 65호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이농현상 등으로 43호만 남아있으며 인구는 97명이다.

2. 양지리 구들장논의 실태 및 구조

양지리 구들장논은 총 33필지, 23,781m²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논이 20필지(60.6%), 밭이 13필지(39.4%)로 조사되었다. 필지별 평균면적은 1,386.5m²이며, 밭에는 주로 콩과 마늘이 재배되고 있다.

양지리에는 Figure 4와 같이 총 4개의 수원(A~D)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1개 수원(C)이 없어지고, 3개(A, B, D)만이 존재하고 있다⁸⁾. 구들장논은 각 수원을 용수원으로 하여 물이 흘러가는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수원은 주로 지하 용출수나 둑땀 등 작은 우물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구들장논의 실태 조사에서는 A와 B를 수원으로 하는 구들장논(이하 A지구, B지구 또는 대상지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체적으로 수원에 근접한 상류부의 논은 필지면적이 크나 하류부로 갈수록 필지면적이 작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A지구의 평균경사는 7.34°, B지구의 평균경사

Figure 3 양지리 구들장논 전경.

Figure 4 양지리 구들장논 수원의 분포 및 형태.

는 7.16°로 이루어져 있다.

구들장논의 통수로는 용·배수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 필지를 기준으로 논바닥 위쪽(용수지점)에 자리한 상부통수로와 논바닥 아래쪽(배수지점)에 자리한 하부통수로, 최종 배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배수통수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구들장논이 이러한 상부통수로, 하부통수로, 배수통수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통수로 대신 일반적인 지표면의 용·배수로가 혼용되어 불규칙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상부통수로는 물의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논에 물이 필요할 경우 상부통수로를 차단하여 논에 물을 대고, 필요 없을 경우 상부통수로를 열어 논 아래의 통수로를 거쳐 배수통수로로 흘러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즉, 필요에 의해 논을 밭으로 이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부통수

로는 논의 물을 배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부통수로가 없이 일반적인 지표면 배수로가 이를 대신하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배수통수로는 상부통수로와 하부통수로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물을 모아 최종적으로 물을 배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필지당 통수로 개수와 크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물의 흐름에 따라 통수로의 위치 및 개수가 결정되고, 또한 물의 양에 따라 통수로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수로의 개수는 필지당 2~5개 정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통수로의 크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어린 아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큰 규모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50~100cm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

Figure 5 구들장은 통수로의 종류.

Figure 6 구들장논의 다양한 통수로의 모습

구들장논은 단면 중앙부분을 기준으로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들장 상층부는 구들장을 깔고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의 구멍을 진흙으로 막은 후, 그 위에 40~45cm의 흙을 쌓고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논둑을 만들어 벼를 기를 수 있는 구조로 일반적인 논의 구조와 동일하다. 하층부는 돌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구들장을 쌓아 올리는 온돌(구들)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돌기둥의 간격은 구들장의 넓이와 관련이 있고,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 1m 내·외의 일정한 높이의 돌을 세우고, 돌기둥 사이는 흙

으로 채우지 않고 비워두고 있다. 이렇게 비워져 있는 공간이 곧 통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구들장논의 특징과 기능

외형적으로 볼 때 구들장논은 일반 다랑이논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첫째, 구들장논은 구들장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온돌(구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들장논은 하층부의 구조에 있어 주로 구들장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돌기둥을 일정

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구들장을 쌓아 올리는 온돌(구들)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흙이 부족하고 돌(구들장)이 많은 청산도의 자연환경 조건에 적합한 구조이며, 특히 돌기둥을 활용한 온돌(구들)구조는 논을 만들 때 흙과 노동력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둘째, 구들장논은 통수로로 가지고 있다. 구들장논은 상·하부 통수로, 배수통수로 등의 통수로로 갖고 있으며, 통수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수로는 용·배수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위쪽 논의 통수로로 통해 물이 유입되고 상·하부 통수로에 의해 물을 배출하여 배수통수로로 통해 배수되는 용·배수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통수로로 통해 논의 선택적 관리가 가능하다. 상부 통수로의 차단하여 논에 물을 대서 쌀을 재배하거나, 상부 통수로로 열어서 물을 대지 않고 흘러보냄으로 논 대신 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셋째, 통수로는 저수조의 기능을 갖고 있다. 지하 곳곳에 위치한 통수로는 물웅덩이를 형성하고 일종의 물탱크나 저수조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물이 풍부한 시기에는 지하 통수로에 물을 저장하여 두고, 물이 부족한 시기에 통수로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넷째, 통수로는 냉해방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 통수로는 산간지역이나 경사지에서 솟아오르는 차가운 용출수가 논으로 직접 분출되거나 흘러오는 것을 차단하여 논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냉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산도 구들장논을 대상으로 분포 실태와 함께 물리적 구조 및 특징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구들장논의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들장논은 청산도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하고 고유한 농업 구조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구들장논은 청산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희귀성을 갖고 있다.

둘째, 전통 농업토목 및 농업용수관리 기술이 적용된 구조물이다. 특히, 통수로는 물의 선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옛 선조의 매우 선진화된 물 관리기술을 볼 수 있는 장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구들장과 통수로로 만드는 기술은 전통 농업토목기술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셋째, 한국의 전통 건축기술인 온돌문화와 농업토목기술의 영농문화가 융합된 한국고유의 전통문화적인 가치

를 가진 구조물이다. 한국의 전통가옥에서 난방을 위하여 고안된 온돌축조방법이 섬지역의 산간지역에 논을 만드는 기술에 응용되어 나타나는 한국의 독특하고 고유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넷째, 구들장논은 주변의 취락과 돌담, 산림 등과 어우러져 지역 고유의 매우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연출하는 중요 자원이다. 구들장 논의 통수로, 돌로서 성곽처럼 쌓은 논의 경계인 논둑 등은 구들장 논의 주요 경관요소이고, 이러한 경관은 주변의 마을의 돌담 등과도 매우 어우러는 독특한 농촌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들장논이 갖는 의의와 잠재 가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청산도의 구들장논은 대부분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휴경지화 되고 있으며, 또한 자연재해(홍수) 및 토목공사(하천정비) 등으로 인해 구들장논의 일부가 유실되거나 변형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구들장논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보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까지 구들장논은 그것이 지닌 다양한 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볼거리의 하나로 평가 절하되어 개발되어 왔으나, 향후 구들장논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를 보전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구들장논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구들장논과 같은 전통농업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로는 문화재청에 의한 경관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명승제나 농림수산식품부의 경관작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등의 소극적 정책을 들 수 있었으나, 최근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농촌 유산제도’ 도입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구들장논과 함께 다양한 농어업·농어촌 유산을 발굴하고 보전·관리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마련과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구들장논에 대한 광범위하고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역사적인 근거와 인문·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실제 구들장논의 축조기술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하여 구들장논이 갖는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향후 연구과제로 하고자 한다.

것을 보았다” 고 함
주8) 행정구역상으로 수원 A는 양지리가 아니라 부흥리에 속해 있으나 수해를 받는 논은 대부분 양지리에 속해 있어 양지리로 간주하여 조사·분석함

- 주1) 김준봉 등(2008)의 저서에 의하면 구들장의 영문표기에 있어 hypocaust는 서양의 원시적 난방 형태를 의미하고, 구들을 "korean hypocaust"로 표기되는 것이 많긴 한데 hypocaust는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라서 난방을 위한 방법이 아예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차라리 구들을 "gudle"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함
- 주2) 일반적으로 ‘다랑이논’이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다랭이논’으로 불림
- 주3) 남해군 가천마을, 지리산 자락의 일부 마을 등
- 주4) 온돌방 구들장 밑으로 불길이 통하는 길
- 주5) 현재까지 다랑이논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시도된 바 없음. 다랑이논의 사전적 정의 : 다랑이 -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 따위에 있는 계단식으로 된 좁고 긴 논배미(네이버 국어사전), 다랭이논 - 경사진 산비탈을 개간하여 층층이 만든 계단식 논(위키백과). 일본의 경우, 다랑이논은 ‘경사 1/20 이상의 사면에 있는 수전(水田)’(棚田学会)으로 정의하고 있어, 논이 있는 위치의 경사로 접근하고 있으며, 물리적 구조와 관련된 언급은 없음
- 주6) 2010년 당시 현지조사, 지역주민 증언 등을 통해 파악한 곳이며, 최근에 장지리 등에서도 추가적으로 발굴되고 이외의 지역에서도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함
- 주7) 김홍표 님(남, 83세)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의 쌀 공출이 너무 심해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각해 졌으며 자급을 위해 산기슭에 논을 만들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나는 16세였는데 마을의 장정들이 산에서 돌(구들장)을 가져와 구들장논을 만드는

참고문헌

1. 김준봉, 리신호, 오홍식, 2008, 온돌 그 찬란한 구들 문화, 청흥.
2. 완도군, 2008, 청산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3. 윤원근·최식인, 2012, 한국 농어업·농어촌 유산 발굴과 보전, 농업전망2012, 농촌경제연구원, 299-330.
4. 이학수, 2009, 실전구들&구들발명이야기, 생각나눔.
5. 한국다랑이논연구회, 2009, 동북아 다랭이논의 새로운 가치와 보전활동, 동북아다랭이논 국제심포지엄.
6. 中島峰広, 2009, “日本の棚田”, 棚田学会.

접 수 일: (2012년 8월 3일)

수 정 일: (1차: 2012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13일)

■ 3인 익명 심사필